

# 전북 초중고 전면 의무급식 실시

### 도내 776개교 21만명 대상... 예산 도교육청 50%·도청 15%·지자체 35%씩 부담

3월부터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 의무급식이 실시된다.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은 3월부터 도내 77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1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의무급식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내는 초중학생과 농어

촌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의무급식을 실시해왔으나 지난해 전북도청과 전주 군산 익산 등 5개 지자체가 고교 의무급식에 예산을 편성에 따라 도내 모든 초중고학생으로 의무급식이 확대됐다. 의무급식에 예산은 전북도교육청 50%, 도청 15%, 지자체 35%씩 부담하

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또 2월부터 3월 말까지 5주간 동안 경찰서, 지자체,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어린이 이보호구역내 교통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불법 주정차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이와함께 420개 초등학교, 1만6,000여명의 신입생들에게 입학식과 함께 책 꾸러미도 전달한다. 동화책 2~3권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해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취지다. /김민근 기자

## 원광대-호원대

### 2018학년도 입학식 거행

원광대학교 2018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신명국 원광학원 이사장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와 교직원, 신입생과 학부모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거행됐다.

모두 3,716명이 입학한 원광대 2018학년도 입학식에서 원불교학과 김주형씨가 학생 대표 선서를 했다.

김도중 총장은 훈사를 통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을 최고의 직업 능력과 도덕적 지도능력을 갖춘 아시아의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원광대학교와 함께 도전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창직(創職)과 창업(創業)능력을 길러 세상의 틀과 판이 바뀌고 있는 이때, 누구보다 빨리 세상에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단기 목표를 세워 매 순간 치열하게 이뤘다가야 당당히 다음 무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농공상·직능일체(士農工商·職能一體)형 인재가 되고, 다양한 영역의 학문과 경험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인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도덕적 주체(Identity)를 길러 달라"고 당부했다.

호원대학교 2018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일 오전 11시 호원문화체육관에서 강희성 총장 및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신입생은 신입학 1,150명, 편입학 283명, 위탁신입학 177명, 위탁편입학 170명 등 총 1,780 명이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강희성 총장은 2018학년도 입학 대상자 1,780명에 대한 입학을 허가했으며, 백경록씨(자동차융합공학과)와 박소연씨(국방과학기술펙사)가 신입생 대표로 선선했다.

또한 자동차기계공학과 강희준씨 외 512명의 장학생이 인당장학금, 내신우수장학금, 수능우수장학금, 국가장학금, 다재내재장학금, 만학도장학금에 대한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김민근 기자·익산=장양원 기자



"화이팅"... 평창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출정식에서 임원진, 감독, 선수단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청소년·부모 고민 1순위 학업·진로상담

### 전체 상담 건수의 41%...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7 운영보고서' 발간

전주시 청소년과 학부모의 큰 고민 거리는 학업과 진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해 총 9만 5033명에게 다양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 운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학업 및 진로 상담이 총 7763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4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센터는 지난해 총 9만 5033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1년 전(9만 418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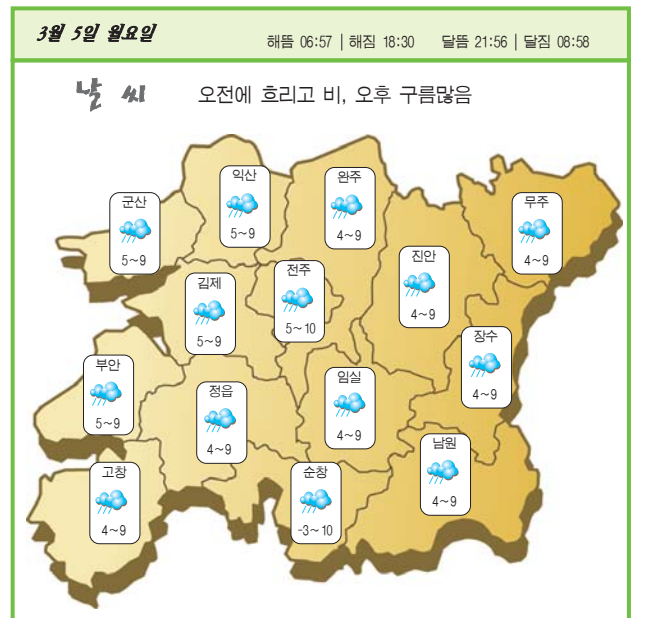
보다 844건 증가했으며 그 중 사업 실적은 총 7만 6180건으로 1년 전(7만 1555건)보다 6.4%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운영보고서에는 2017년도 센터 추진 방향이자 중점 사업인 △센터 개원 25주년 기념 포럼 개최 △사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진로 탐색 사업 활성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년차(발전기)로 우수 사례 발굴 및 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혜선 센터장은 "올해는 학기 초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학교 적응 프로그램 활성화와 가족 기능 강화 프

로그램 확대, 정부정책 대응 후기 청소년 성인이 이행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사업 내실화 등을 목표로 삼겠다"며 "청소년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주체로 세우는 최상의 상담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화(063-227-1005) 또는 24시간 청소년상담전화(063-236-1388)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규민 기자



## 150개 고교 과학동아리 지원 공모

### 25일까지 접수... 10개 중학생동아리도

전북도교육청이 총1억5,000만원을 편성, 과학적 흥미를 지닌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50개 고교 과학동아리를 공개모집해 지원한다.

1개 팀당 100만원을 지원해 과학실험(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융합과학), 과학연구(자유연구, 컴퓨터과학), 교과외 활동(메이커활동, 지역사회문제해결, 과학봉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돕는다.

이번 달 25일까지 접수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할 예정이며, 지원 학생들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 동아리를 구성해 동아리 소개와 운영

계획서 등을 갖춰 이메일(moonhs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함께 10개 중학교 학생동아리도 공개모집한다. 교사와 학생 15명 내외로 구성된 과학동아리에 팀당 100만원씩 지원해 연구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을 돕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도 지원한다. 총2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총203개 교사동아리에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재구조화 활동 등을 돕는다. /김민근 기자

## 김승환 도교육감, 전주 화정초 방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새학기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전주 화정초를 방문해 학교 교육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전주 화정초를 방문해 학교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맞이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처음 들어오는 특별한 날이기

위에 방문했다"라며 "전주 화정초가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신설 학교는 송천동 예코시티 지역의 전주 화정초가 유일하다.

도교육청은 개학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확인과 관련 자치단체 및 기관에 과속방지턱, 주정차 CCTV, 안전표시 등 시설물 설치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